

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족내 갈등과 건강보호행동으로서의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인과관계분석

박재산* · 문재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세대 학교

〈 목 차 〉

I. 연구배경 및 목적	V. 결론 및 고찰
II. 선행연구 고찰	참고문헌
III. 연구방법	Abstract
IV. 연구결과	

I. 연구배경 및 목적

건강증진은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거시적 접근과 개인적 차원의 미시적 접근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또한 건강증진의 방법으로 건강위험행동의 감소와 건강보호행동의 증가가 있다. 최근에는 건강보호행동의 증가가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건강위험행동의 감소보다는 건강보호행동의 증진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미래의 건강을 사전에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있다. 아동은 아니고 그렇다고 성인도 아닌 유보된 상태(moratorium)에 있는 사람들로서 아직 역할이

뚜렷하지 못한 주변인(marginal person)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 가정은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전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제도와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인격, 가치관, 자아개념 등을 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기까지 모든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회적 상황은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즉 산업화와 현대화로 인해 가족 구조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하고, 기능적 측면에서도 이혼, 가출, 별거, 유기, 사망 등으로 가족의 유대가 약화되고 가족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청소년들이 많은 위험에 무방비상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신저자 : 문재우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604-5 한세대 학교 경찰복지학부 (우: 435-742)

전화번호: 031-450-5248, E-mail: moon1229@hansei.ac.kr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과 학생들의 부적응 정도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있다.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과 부적응은 학교폭력, 가출, 무단결석, 약물남용, 청소년 비행 등의 학생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가정적 측면과 자아개념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 가족갈등이 있는 자녀들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구조의 불만족으로 인해 이들이 받게 되는 영향은 크다고 말하고 있으며,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할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부재로 인한 역할갈등 및 사회화의 갈등, 심리적으로 동일시할 대상의 부재, 사회적·정서적 결핍으로 인한 대인관계 결여, 비행, 일탈의 접근 용이성 등 많은 어려움과 부적응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전용, 1994).

이와 같이 가족의 불화로 자녀들의 부적응 양상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한국 사회의 가족은 더욱 불화가 심화되어 그 수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있는 가정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현상은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의 최전선인 가정 위기의 원인으로는 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과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양육기능의 취약화, ② 자녀수의 감소와 과잉보호, ③ TV와 정보화 확산에 기인한 개인주의로 가족 간의 교류 및 대화단절, ④ 학벌위주사회와 과도한 진학경쟁에 의한 부모 자녀간의 정신적 강박화, ⑤ 아버지 역할의 변화 및 위기, ⑥ 부부간의 갈등에 따른 가족 간의 정신적 황폐, ⑦ 이웃이나 친척 등 지역사회 자연조직망의 해체 등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http://www.ksrc.or.kr/>, 2006).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적응

상 문제를 일으키고, 교육의 기회를 소비하고 있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인격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가족 내 갈등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부적응간의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학교부적응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학교부적응은 보전, 교육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은 자아존중감, 자기인식,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부적응 학생은 흡연이나 음주를 보다 일찍 시작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적으로 흡연과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European Network of Health Promoting School, 1997).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보호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요인으로 학교부적응을 지적할 수 있다. 학교부적응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감소시켜 직접적으로 건강보호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적응과 자아개념은 건강보호행위 중의 하나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인지하는 가족 내 갈등의 정도와 자아개념, 학교생활 적응도의 정도를 살펴본다. 둘째, 결과변수로서 자아개념과 학교적응과 가족 내 갈등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자아개념 형성 및 학교생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가족 내 갈등이나 자아개념, 학교부적응 연구결과를 건강증진이

나 보건교육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넷째, 특히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부적응의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가족갈등이 건강보호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증진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보건교육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청소년의 가족관련 요인과 학교적응과의 관련 요인간의 기존연구는 크게 2가지의 흐름이 있다. 첫째는 미시적 연구로 부모자녀간의 관계적 특성과 학교적응 간에 관련된 연구이다(신나나와 도현심, 2000; 류경희, 2003; 최지은과 신용주, 2003; 백경숙과 권용신, 2004; 유안진 등, 2004; 이진숙과 정혜경, 2004; 정미진, 2005; 조은정, 2005). 이들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 간의 의사소통, 가족 간의 관계정도 등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연구는 다시 부모간의 갈등, 부모·자녀간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으로 세분되고 있으나, 가족 간의 갈등 중 부모간의 갈등은 청소년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교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반된 연구결과로 인해 확고한 일반화된 결론이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가족 간 갈등 특히 부부간의 갈등이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과 관계가 있다는 일반적인 가설은 지지되고 있다. 부부갈등과 부적응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밝힌 연

구로 변영인(1994), 박수영(1998), 우진영(1998), 이향선(2000), 황기섭(2000), 정소영(2000), 박미경(2000), 노상렬(2001), 김민정(2001), 김은숙(2001) 등이 있으나, 이들 연구는 단선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중재요인의 효과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민식(1999)은 부부갈등과 부적응 간에 양육태도를 투입하여 연구하였으며, 류경희(2004)는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을 분석한바 있다. 특히 이연숙(1991), 서명성(1999), 김현숙(1999)의 연구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교 적응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대화시간이 길수록, 의사소통의 빈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대화를 나눌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55명을 상대로 연구한 이진숙(2002)에 의하면 남학생집단이, 연령이 높은 집단이, 학교성적이 높은 집단이 일반적으로 학교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부부관계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 전체적인 학교적응도에 정의 상관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진숙의 연구에서는 전체 학교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연령과 아버지와의 대화를 지적하였다. 그 밖에 청소년의 자아형성에 가족 간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로는 고정희(1981), 석현양(1987), 김정희(1987), 이진용(1991) 등의 연구가 있다.

최지은(2001)의 연구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였다. 즉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출생순위,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와의 관계, 부부구조, 가정의 경제적 지위, 학교성적, 종교유무를 지적하였다. 최

지은과 신용주(2003)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어머니의 관계보다 학교생활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종교유무, 학업성적, 경제적 지위가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변수로 지적한 주현정의 연구(1998)가 있다.

둘째는 거시적 연구로 가족구조와 소득 등 가족배경요인과 학교적응간의 영향력 비교연구이다(박현선, 1998; 장상수, 2000; 구인희, 2003; 박연수, 2003; 최지은과 신용주, 2003).

선행연구들은 가족관련 요인이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가족 배경과 가족 관련요인들 중 어떤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큰지 또는 각 요인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정운과 이경아, 2004; 장유진과 문재우, 2005).

가족 내 갈등이 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의 흐름은 두 가지로 하나는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한 가족구조의 결손이 자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구조 자체보다는 부부불화로 인한 적대적 가정 분위기가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Parker와 Asher, 1987; Gottman과 Fainsilber Katz, 1989). 청소년 자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자녀관계에 관련된 매개변인으로서 부모의 감독소홀(Wilson, 1980; Steinberg, 1986), 부모 자녀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패턴(Steinberg, 1987), 부모 및 아동에게 있어 부적 정서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의 취약성(Maccoby, 1984; Gottman과 Fainsilber Katz, 1989)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김은애

(2000), 심미경(1999), 허은희(1998)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개인능력의 변수로 건강보호행위를 향상시키는 동기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재순(1995)은 가족기능이 건강증진행위에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가족기능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가족 내 갈등과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 간에는 구조적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된 후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과 3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개념 변수를 독립변수인 가족 내 갈등과 종속변수인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가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수들은 다차원적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개념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매개 역할을 하는 자아개념이 최종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이며, 설정된 모형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가족 내 갈등의 정도가 심할수록 자아개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가족 내 갈등의 정도가 심할수록 학교적응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바람직한 자아개념 형성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통해 그림 1에 살펴보듯이 학교적응을 강화시킴으로써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건강보호행위를 증진시키는 동기를 모색하는 것이 본연구의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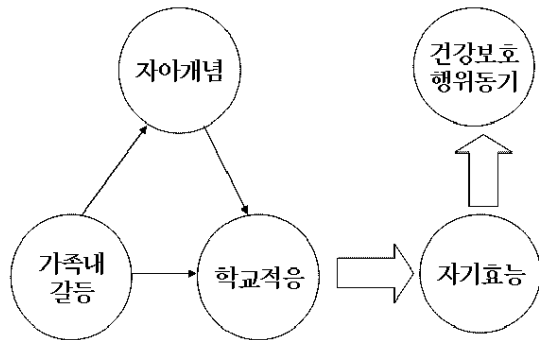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서울소재 3개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조사를 2004년 9월 9일~10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고, 사전조사 결과를 근거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조사에 이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9월 15일~9월 17일까지 3일간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서 실시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설문내용은 무기명으로 그리고 학술적 용도로만 이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응답자들이 가능한 한 솔직하게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최종적으로

280부가 회수되어 설문에 대한 응답률은 93% 정도였다. 이 중에서 무응답이 많거나 확실적인 점수를 부여한 응답지 12부를 제외한 268부가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의 경우 15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1.3%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여자(57.5%)가 남자(42.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중3이 46.3%로 가장 많았고 가족형태는 부모모두 생존하고 있는 응답자가 88.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경제수준은 “중”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생활만족의 경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5.5%로 가장 높았다. 종교의 경우 기독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이 42.2%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42.9%로 가장 높았다. 아버지의 직업으로는 사무직이 32.1%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직업으로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부가 51.1%로 절반을 넘었다. 아버지와의 대화정도에서는 “거의 매일”이 48.9%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와의 대화의 경우도 거의 매일 한다고 하는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부모님과의 대화정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님의 관심에 있어서는 “조금 많다”가 48.5%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성적의 경우 중위권이 61.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가족갈등과 학교성적간의 관계에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

3.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는 기본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이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지하는 가족 내 갈등의 정도가 자아개념 형성 및 학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구분				
	빈도	%		빈도	%		빈도	%
연령	13세	29	10.8	아버지 직업	전문직	38	14.2	
	14세	49	18.3		사무직	86	32.1	
	15세	84	31.3		서비스	24	9.0	
	16세	23	8.6		생산직	18	6.7	
	17세	18	6.7		관리직	16	6.0	
	18세	65	24.3		반전문직	22	8.2	
성별	남자	114	42.5		농·어민직	4	1.5	
	여자	154	57.5		판매직	24	9.0	
학년	중1	31	11.6		사업, 퇴직	34	12.7	
	중2	30	11.2		무응답	2	0.7	
	중3	124	46.3		어머니 직업	전문직	26	9.7
	고1	1	0.4			사무직	24	9.0
	고3	82	30.6			서비스	22	8.2
가족형태	부모	237	88.4			생산직	9	3.4
	아버지만	5	1.9			관리직	4	1.5
	어머니만	12	4.5			반전문직	16	6.0
	조부모와함께	14	5.2			농·어민직	2	0.7
경제수준	상	41	15.3			판매직	28	10.4
	중	206	76.9	주부		137	51.1	
	하	21	7.8	아버지와 대화		한달이상 한번정도	21	7.8
학교생활만족도	매우불만족	27	10.1		2~3주에 한번정도	9	3.4	
	불만족	61	22.8		일주일에 한번정도	37	13.8	
	보통	122	45.5		2~3일 한번정도	67	25.0	
	만족	50	18.7		거의매일	131	48.9	
	매우만족	8	3.0		무응답	3	1.1	
종교	기독교	105	39.2	어머니와 대화	한달이상 한번정도	9	3.4	
	천주교	44	16.4		2~3주에 한번정도	3	1.1	
	불교	30	11.2		일주일에 한번정도	4	1.5	
	원불교	2	0.7		2~3일 한번정도	22	8.2	
	무교	79	29.5		거의매일	230	85.8	
	이슬람교	2	0.7	부모님의 관심	전혀 없다	1	0.4	
	기타	6	2.2		조금 부족하다	10	3.7	
아버지학력	초등졸	6	2.2		보통이다	76	28.4	
	중졸	18	6.7		조금 많다	130	48.5	
	고졸	90	33.6	지나치게 많다	51	19.0		
	대졸	113	42.2	학업성적	상위권	49	18.3	
	대학원 이상	40	14.9		중위권	166	61.9	
	무응답	1	0.4		하위권	53	19.8	
어머니학력	초등졸	6	2.2	가족갈등과 학교 성적 관계	거의영향을주지않음	34	12.7	
	중졸	18	6.7		큰영향을 주지않음	69	25.7	
	고졸	115	42.9		보통이다	89	33.2	
	대졸	105	39.2		큰영향을 줌	52	19.4	
	대학원 이상	23	8.6		매우 큰영향을 줌	24	9.0	
	무응답	1	0.4					
계	268	100.0	계	268	100.0			

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설문 문항은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내 갈등에 관한 문항(10개), 자아개념에 대한 문항(25개),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문항(25개),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변수로 연령, 성, 학년, 가족형태, 경제상황, 종교, 부모님 학력 등 16개 문항을 포함한 총 7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된 설문지의 문항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선행연구의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를 제외하고는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첫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의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고유치(Eigen value) 1.0 이상,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0.4 이상으로 사용하였다(강병서와 김계수, 1998). 분석결과 가족 내 갈등은 6개 요인, 자아개념은 4개 요인, 학교적응은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각 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은 0.6 이상이고 고유치도 1.0 이상으로 일반적인 타당성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어 설문이 측

정하려는 변수의 개념을 비교적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추정에 사용되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계수 값이 0.7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Bailey, 1982) 본 연구도 이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의 신뢰도 계수는 가족 내 갈등(0.784), 자아개념(0.834), 학교적응(0.800)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본 연구의 설문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모든 변수가 0.7보다 높게 나타나 문항의 내적 일관성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측정변수간의 상관성 및 설명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의 값이 1에 가까운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데, 본 연구에 이용된 변수들은 그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넷째,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각 이론변수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간의 평균치 비교결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분산구조분석을 위한 최종적인 측정변수로는 조

표 2. 공변량구조분석을 위한 측정변수들

이론변수	측정변수
가족내갈등	V1 - 경제적 갈등
	V2 - 자녀양육 갈등
	V3 - 부모성격 갈등
자아개념	V7 - 도덕적 자아
	V8 - 성격적 자아
학교적응	V11 - 교사관계
	V12 - 교우관계
	V13 - 수업태도
	V4 - 부모사회활동 갈등
	V5 - 가족건강 갈등
	V6 - 친지간의 갈등
	V9 - 가정적 자아
	V10 - 사회적 자아

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변수를 제외한 가족 내 갈등 6개 차원(경제적 갈등, 자녀양육 갈등, 부모 성격 갈등, 부모사회활동 갈등, 가족건강 갈등, 친지간의 갈등), 자아개념 4개 차원(도덕적 자아, 성격적 자아, 가정적 자아, 사회적 자아), 학교적응 3개 차원(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등 총 13개 하위차원이 포함되었다(표 2). 분석을 위한 모든 자료처리는 SPSS Ver. 10.0을 이용하였고,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공분산구조분석은 AMOS Ver. 4.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변수 간 상관성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상관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본 결과 기준치인 0.80 이상 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갈등의 유형 간에는 대부분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01$), 부모성격갈등과 부모사회활동갈등간의 상관관계수가 0.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1$).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친지간의 갈등과 교사관계에 있어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05$),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경제적 갈등, 부모사회활동갈등, 가족건강갈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마지막으로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이러한 상관관계의 방향은 모형의 가설에서 설정한 방향과 모두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3. 변수들 간 상관분석 결과

변수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A13
A1	1.000												
A2	0.401**	1.000											
A3	0.449**	0.331**	1.000										
A4	0.505**	0.347**	0.537**	1.000									
A5	0.359**	0.354**	0.410**	0.484**	1.000								
A6	0.346**	0.259**	0.253**	0.312**	0.346**	1.000							
A7	-0.112	0.036	-0.125*	-0.058	-0.093	-0.002	1.000						
A8	-0.140*	0.035	-0.044	0.006	-0.043	0.002	0.668**	1.000					
A9	-0.242**	-0.107	-0.207**	-0.141*	-0.128*	-0.009	0.506**	0.407**	1.000				
A10	-0.112	0.101	-0.005	0.057	-0.037	0.004	0.550**	0.726**	0.363**	1.000			
A11	0.020	-0.071	-0.111	-0.054	-0.085	-0.131*	0.213**	0.173**	0.240**	0.159**	1.000		
A12	-0.172**	-0.012	-0.108	-0.133*	-0.240**	-0.098	0.359**	0.518**	0.180**	0.562**	0.181**	1.000	
A13	-0.096	-0.034	-0.008	-0.001	0.027	-0.146*	0.276**	0.281**	0.262**	0.313**	0.376**	0.168**	1.000

주: A1: 경제적 갈등, A2: 자녀양육 갈등, A3: 부모성격 갈등, A4: 부모사회활동 갈등, A5: 가족건강 갈등, A6: 친지간의 갈등, A7: 도덕적 자아, A8: 성격적 자아, A9: 가정적 자아, A10: 사회적 자아, A11: 교사관계, A12: 교우관계, A13: 수업태도

* $p<0.05$ ** $p<0.01$

2. 공분산구조분석(SEM)을 통한 연구가설의 검정과 논의

1) 연구모형의 검정

본 연구의 각 구성개념들 간의 관련성 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분산구조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 구조모형(overall model)을 검정한 결과, 적합도 지수들이 χ^2 179.188, df 62, P value 0.000, GFI 0.907, AGFI 0.863, RMSR 0.04, NFI 0.942, CFI 0.989의 값을 갖는 그림 2와 같은 최적모형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전체구조모형 검정결과 χ^2 통계량 및 적합도 평가지수들이 좋은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각각의 기준에 부합하는 값을 가짐으로써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측정변수들에 의해 이론변수가 설명되어 지는 비중을 나타내는 다중상관계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의 값이 학교적응 0.873, 자아개념 0.496으로 나타났다. 즉 이론변수의 다중상관계수가 높을수록 모형 내에 설명력이 높은 측정변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최종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인 학교적응의 경우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가설의 검정

공분산구조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이론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를 이용하여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검정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가족 내 갈등의 정도가 심할수록 자아개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가족 내 갈등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 값은 0.080, Critical ratio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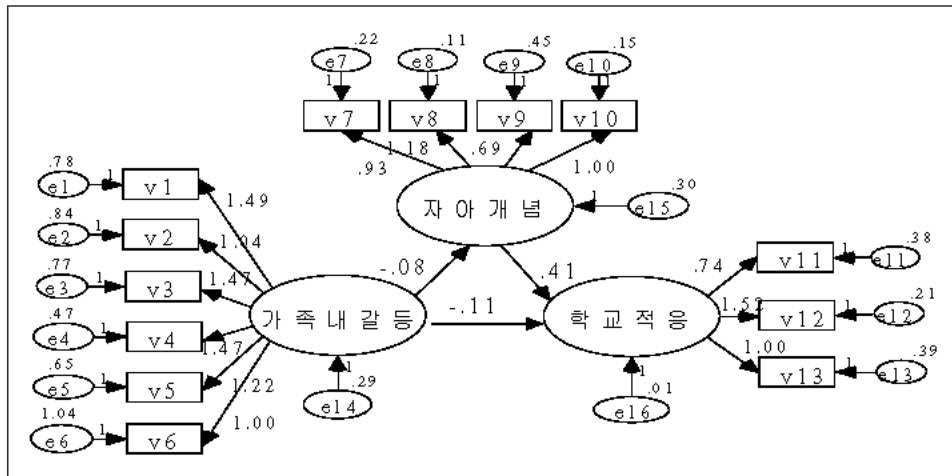


그림 2. 공분산구조분석 모형

주: V1 경제적 갈등, V2 자녀양육 갈등, V3 부모성격 갈등, V4 부모사회활동 갈등, V5 가족건강 갈등, V6 친지간의 갈등, V7 도덕적 자아, V8 성격적 자아, V9 감정적 자아, V10 사회적 자아, V11 교사관계, V12 교우관계, V13 수업태도

* V6, V10, V13은 비표준화모형에서 요인부하량을 '1'로 고정된 값임.

1.064(P<0.05)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가설 2>는 가족 내 갈등의 정도가 심할수록 학교적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다. <가설 2>를 검정한 결과, 경로계수 값은 0.107, Critical ratio값은 2.586(P<0.01)으로 가족 내 갈등은 99% 신뢰구간에서 학교적용에 유의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바람직한 자아개념 형성은 학교적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정한 결과, 경로계수 값은 0.411, Critical ratio값은 5.421(P<0.01)로 자아개념은 학교적용에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개념과 학교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전체효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효과는 가족 내 갈등(0.080)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리고 가족 내 갈등(0.107)과 자아개념(0.411)이 학교적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간접효과는 가족 내 갈등(0.033)이 학교적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전체효과 경우 가족 내 갈등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이 0.080으로 나타나고, 가족 내 갈등이 학교적용에 미치는 영향은 0.139, 자아개념이 학교적용에 미치는 영향은 0.411로 분석되었다.

3) 변수들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공분산구조분석을 통해 가족 내 갈등이 자아

본 연구는 서울시내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인지하는 가족 내 갈등이 정도와 자

V. 결론 및 고찰

표 4. 공분산구조분석 결과에 따른 가설검정

가설	경로 및 방향	경로계수	S · E	C · R	P	채택여부
가설1	가족내갈등→자아개념(-)	-0.080	0.075	-1.064	0.047*	채택
가설2	가족내갈등→학교적용(-)	-0.107	0.041	-2.586	0.010**	채택
가설3	자아개념→학교적용(+)	0.411	0.076	5.421	0.000**	채택

모형적합도 지수: $\chi^2-179.188$, $df-62$, $p-value-0.000$, $GFI-0.907$, $AGFI-0.863$, $RMSR-0.04$, $NFI-0.942$, $CFI-0.989$

주: GFI(Goodness of Fit Index: 0.9 이상),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0.9이상), RMSR(Root Mean Square Residual: 0.05이하), NFI(Normed Fit Index: 0.9이상), CFI(Comparative Fit Index: 0.9이상)이 바람직함
* p<0.05, ** p<0.01

표 5. 변수들의 직접(Direct), 간접(Indirect), 전체효과(Total Effects)

변수구분		경로계수(Parameter Estimate)			다중상관계수(R ²)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자아개념	가족내갈등	-0.080	-	-0.080	0.496
	학교적용	-0.107	-0.033	-0.139	
학교적용	가족내갈등	-	-	-	0.873
	자아개념	0.411	-	0.411	

아개념 및 학교적응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것이다. 수집된 자료 중에서 최종적으로 268명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인과관계분석을 검증을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분산구조분석(SEM)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결과 갈등의 유형 간에는 대부분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모성격갈등과 부모사회활동갈등간의 상관계수가 0.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친지간의 갈등과 교사관계에 있어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경제적 갈등, 부모사회활동갈등, 가족건강갈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공분산구조분석결과 가족 내 갈등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 값은 0.080, Critical ratio값은 1.064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내 갈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계수 값이 0.107, Critical ratio값은 2.586으로 가족 내 갈등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람직한 자아개념 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계수 값이 0.411, Critical ratio값은 5.421로 자아개념은 학교적응에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분산구조분석을 통해 가족 내 갈등이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전체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효과는 가족 내 갈등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이 0.080, 가족 내 갈등과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0.107, 0.411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는 가족 내 갈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0.033으로 나타났다. 전체효과의 경우 가족 내 갈등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이 0.080으로 나타나고, 가족 내 갈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0.139,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0.411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 갈등이 간접효과를 감안한다면 학교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 내 갈등이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결과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동일하였다. 노길미(1999)의 연구는 부부간의 갈등은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만을 증대시켜 부적응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현주(1999) 역시 가정불화가 잦은 가정의 학생은 학교적응이 낮으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부모 간 갈등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가족 간의 친밀도와 청소년의 학교적응간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부모가 나타내는 적개심, 거부적 행위, 감독 소홀, 일관성 없는 억압적 훈육 등은 청소년의 문제 행동 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zdin, 1987). 또한 청소년·부모 간 정서적 유대의 단절은 청소년의 우울증이나 낮은 자존감과 같은 내부 심리적 문제의 발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icchetti와 Toth, 1998).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의 경우 가족구조 양상보다는 부모불화 정도가 더 높은 예언 능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명숙과 김영미, 1993). 즉 부부간의 불화는 가족 관계자체를 왜곡시키거나 가족 간의 유대를 파괴시켜 자녀들의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정이나 행동을 변화시켜 결국은 자녀의 학교 부적응과 같은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Johnson 등, 1987; Grych와 Fincham,

1990).

부모갈등이 청소년 자녀에게 가져다주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갈등은 공격성(Holden과 Richie, 1991), 비행·반사회적 행동(Peterson과 Zill, 1986; Davies와 Cummings, 1994), 사회적 고립(Emery, 1982), 사회적 무능성(Emery와 O'Leary, 1984), 낮은 학업성취도(Long 등, 1988)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정미진, 2005에서 재인용).

가족 내 갈등이 심할수록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낮고 학교 부적응도가 높다는 본 연구 결과는 기존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Rosenberg(1965)는 부모의 관심이 자아개념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자녀간의 관계친밀도는 자아개념 발달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 김정옥(1987), 박근혜(1999), 김지현(2001), 박미주(2002)의 연구 역시 가족 내 갈등이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여 낮은 자아개념을 가지게 하고 결국은 학교 부적응과 사회적 미성숙을 야기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 갈등 특히 부모와의 갈등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모가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인 지지와 격려를 해주고,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가족 내 자원 및 강점을 찾으며 생활하게 될 때 적응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의 대화와 관심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Miller(1970)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으로 부모의 관심을 지적하였다. 정유진(2000)은 가족 자원을 활용한 외적 대처양식을 사용할수록 학교적응을 잘 한다고 보고 특히 남·여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요인으로 어머니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연숙의 연구(1991)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중 특히, 어머니 자녀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가족의 청소년들보다 더 좋은 적응상태를 보였다. 김수연(1997) 역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신뢰 있고 애정적인 부모 자녀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간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부족하다 보면 자녀가 문제를 보임에 따라 부모는 더욱 강요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통제하고, 반대로 자녀는 더욱 반항적이고 일탈적인 반응을 보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DeBaryshe 등, 1993).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부적응에 대한 접근이 청소년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하여 접근하고 치료하는 단선적 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적 접근과 부모간의 관계, 부모 자녀관계 등의 가족적 접근, 학교·지역사회·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시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교 내 또는 학교와 가정과 가까운 곳의 지역사회 내 사회적 서비스 기관들이 긴밀한 연대관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통합적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 문제는 개인이나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받아들여 총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서비스의 기본적 전제로 첫째, 보건교육의 영역확대와 내실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보건교육이 단지 학교 내에서만 국한해서 실시되는 한정된 영역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건교육이 청소년 당사자에게만 한정시

킬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보건교육은 실천적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건교육이나 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활용을 반드시 전제하여야 한다. 보건교육이나 건강증진의 영역이 확대될지라도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충분한 활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 자아개념과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에 대한 보건학적 접근은 독립된 사업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복지와의 통합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즉 보건교육에 대한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을 상대로 한 건강증진사업은 국가보건의정책, 청소년건강에 위협을 주는 제반환경이나 사회적 제도의 개선 등에 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 개인의 능력 혹은 의지의 개발이 오히려 건강보호행위 증진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가족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학교부적응을 감소시키고, 최종적으로 자기효능감을 제고시키고 의지를 강화시키는 보건교육이 필요하다. 보건교육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습득하게 되면 가정이나 학교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욕구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지지체계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특정 지역에서 소규모로 표집하였고, 연구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엄격히 통제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한 조사 연구라는 점에서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다.

둘째,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에 응답한 대상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어서 설문에 답하는 태도에 있어 성실성의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가족 내 갈등이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건강보호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중·고생을 모두 같은 청소년으로 보아 분석하였지만 중·고생은 매우 다른 부적응 요인을 지닌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중고생을 분리하여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가족 내 갈등과 학교부적응을 매개하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을 규명하는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강병서, 김계수. 사회과학통계분석. SPSS 아카데미, 1998. 쪽 254-259

강유진, 문재우.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05;16(1): 283-316.

고정희. 어머니의 대화 형태와 아동의 성적 및 사회적 인지 능력간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1.

곽현근.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대전: 대전대학교 대학원, 2001.

구인희.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2003;22:393-410.

김관희.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경남: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김민정.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 김수현.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7.
- 김용희. 중학교 학교생활 부적응 과정과 요인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 김은숙. 부부갈등 및 부부관계 특성과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성향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 김은애 외. 청소년의 건강증진행위와 자기효능과의 관계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0;13(2): 241-259.
- 김정옥. 도시부부의 폭력행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대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1987.
- 김정희.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 개념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7.
- 김지현. 일반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비교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1.
- 김현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구[석사학위논문]. 제주: 제주대학교 대학원, 1999.
- 노길미.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와 비행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 노상렬. 부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2001.
- 류경희. 창원시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한국생활과학회지 2004;13(2):195-213.
- 류경희.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2003;41(12): 147-168.
- 문선모, 윤기수. 학생의 배경적 특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학생지도연구 1997;4: 56-67.
- 민병수.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 박경란, 이영숙, 전귀연. 현대가족학. 신정, 2001.
- 박근혜. 가정폭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 박미경. 부부갈등 및 아동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 박미주.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대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2.
- 박수영. 아동의 부모간 갈등 지각과 대처행동 및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 박연수.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 박재순. 중년후기여성의 건강증진행위 모형구축[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5.
- 박현선.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 한국사회복지학 1999;37:195-216.
- 박현선.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발달메커니즘. 청소년학연구 1998;5(3):147-165.
- 배기명.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에 따른 적응문제 및 적응기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경남: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1983.
- 백경숙, 권용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2004;6(2):87-99.
- 백종흠.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교적응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경남: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1984.
- 변영인.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및 양육태도와 이탈행동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4.
- 서명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9.
- 석현양. 의사전달과 청소년 자아개념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국민대학교 대학원, 1987.
- 신나나, 도현심.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부모-자녀 관계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상호작용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00;47:99-113.

- 심미경.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신성대학논문집 1999;5:447-467.
- 안규복. 중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분석[석사학위논문]. 광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 양민철.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적간의 관계분석[석사학위논문]. 전북: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5.
- 우진영.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부부갈등, 부모-자녀 관계 사이의 관련성[석사학위논문].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 유상철.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2.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청소년의 부양양육행동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04;9(3):161-180.
- 유영철.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0.
- 유윤희. 학교적응 불안, 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4.
- 이건용. 결혼가정 청소년의 문제점과 그들을 위한 서비스 실태에 관한 연구-부산지역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울: 숭실대학교 대학원, 1994.
- 이명숙, 김영미. 가족구조와 부모불화가 청소년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993; 6(2):201-216.
- 이민식.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면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9.
- 이연숙. 가족체계 및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적응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전북: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1.
- 이정순. 학생의 가정문화와 문화습성에 따른 학교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6.
- 이정운·이경아. 초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2004 ;16(2): 261-276.
- 이진숙, 정혜경.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부모와 부부 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04;22(3):47-61.
- 이진숙.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북: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2.
- 이진용.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 이현주. 가정불안, 학교태도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9.
- 장상수. 교육기회의 불평등 : 가족배경이 학력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2000;34(3):671-708.
- 정미진. 부모간 갈등,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 부적응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5.
- 정유진.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요인[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 조은정. 부모양육행동과 청소년 문제 대처 수준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부산: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5.
- 주현정.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사회지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 최지은, 신용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003;4(2):199-210.
- 최지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 허은희 외. 대학생의 건강증진 행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998; 11(2).
- Bailey K. Method of Social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1982.
- Baral BN. Some factors causing breakdown of social adaptability amongst of higher

- secondary grade of West Bengal. In *Psychological Abstract* 1971;50.
- Charters WW. The social background of teaching. In N. L. Gage(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Chicago: Rand McNally. 1963.
- Cicchetti D, Toth SL.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 1998;53:221-241.
- DeBaryshe BD, Patterson GR, Capaldi DM. A performance model for academic achievement in early adolescent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1993;29(5):795-804.
- European Network of Health Promoting Schools. *The health promotion school*. 1997.
- Gottman JM, Fainsilber-Katz L.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1989;25(3):373-381.
- Grych JH, Fincham FD.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990;108(2):267-290.
- <http://www.ksrc.or.kr/> 2006년 3월 23일자 검색.
- Johnson EN, Barling J, O'Leary KD. Predicting child behavior problems in maritally violent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87;15:165-173.
- Kazdin AE. *Conduct disord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87.
- Maccoby EE.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 change *Child Development* 1984;55: 317-328.
- McLoyd VC, Wilson L. The strain of living poor: Parenting, social support, and child mental health. In A. C. Huston (Ed.), *Children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91.
- Miller GW. Factors in school achievement and social clas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70;64(4).
- Parker JG, Asher SR.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987;102(3):357-389.
- Rosenberg M. *Society and adolescence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Rutter M. *Studies of Psychological Risk: the Power of Longitudinal Dat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Steinberg LD. Latchkey-key children and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An ecologic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986;22:433-439.
- Steinberg LD. Single parents step-parents, and the susceptibility of adolescents to antisocial peer pressure. *Child Development* 1987;58:269-275.
- Stern SB, Smith CA, Jang SJ. Urban families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ocial Work Research* 1999;23(1):15-26.
- Wilson H. Parental supervision A neglected aspect of delinquency.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1980;20(3):203-235.

<ABSTRACT>

The Causal Relationship of Adolescent's Family Conflicts,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as Health Protection Behavior

Jae-San Park* · Jae-Woo Moon**

*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Hansei University*

Objectives: The school adjustment problems of the adolescence groups become more aggravated and are on the increa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 of intra-family conflicts,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as health protection behavior.

Methods: The study setting is the adolescence groups. Data were collec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268 studen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the causal relationship of intra-family conflicts,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Results: This study shows that firstly, the total effects of intra-family conflicts have a negative effect on self-concept(path coefficients=-0.080) and school adjustment(path coefficients=-0.107). And the self-concept factor as an intervening variable are affecting positively on school adjustment(path coefficients=0.411). Secondly, the economic conflicts, personally conflicts and social activity conflicts of father and mother among various family conflicts are more highly affecting on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p<0.01$)

Conclusions: These results imply that first,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students is essential to solve the problems of school adjustment. Especially economic conflicts should be solved to improve the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second, a variety of programs are available for schools to employ in an effort to provide interventions for students who demonstrate school adjustment. Finally, it is necessary for family, school and all the society members to comprehensively cooperate to solve family conflicts and school adjustment.

Key words : Family Conflicts, Self-concept, School Adjustment, Adolescence Groups, Health Protection Behavior